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 그레이브스와 아이젠만의 초기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tial Analysis in Semiotic Architecture
- Focus on the early works of M. Graves and P. Eisenman -

이용재* / Lee, Yong-Jae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spatial analysis in semiotic architecture focusing on the early works of M. Graves and P. Eisenman, the representative architects of semiotic architecture. This study on the semiotics of architectural space can be started with literaeur's approaches which recognizes it as the language. Thus, to applicate semiotics in architectural space means a methodology reaching for essential architecture.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s per the above mentioned aims and intentions are as follows : The viewpoint of spatial analysis in M. Graves's semiotic architecture is defined the semantic metaphorical space of denotative contexts. : That of P. Eisenman's is described the synthetic deep space of connotative self-restraint.

키워드 : 현대건축, 공간, 기호론, 그레이브스, 아이젠만

1. 서론

건축을 비롯한 모든 예술분야는 작가의 개념과 의도를 작품을 통해 감상자와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방식은 언어를 논의수단으로 작가의 논지를 전달하는 문학과 밀접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언어란 의식을 표현하는 일종의 기호 체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을 논의함에 있어서 언어의 기호성과 의미, 즉 기호론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을 기호론적 구성방식과 동일시하여 해석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기호론적 해석은 보다 실제적 요소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건축에서는 언어의 기호성에 관한 의미를 주로 형태적 측면으로 규정했던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을 공간적 의미가 바탕이 되어 형태로서 구성된 하나의 의미전달 매체라고 규정한다면, 건축의 기호론적 해석은 공간의 구성형식과 의미의 전달관계에 대해서 형태구성을 참고하여 기호구조적 체계의 상호관계성에 집중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의 본질적 접근방식의 하나로서 기호론적 해석을 건축공간에 적용하여 작품을 통해 비교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건축 언어의 기호론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작품에 적용한 건축가 중에서 유사성과 변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레이브스(M. Graves)와 아이젠만(P. Eisenman)의 초기작품으로 정했으며, 방법상으로는 논의의 사상적 바탕이 될 수 있는 현대 철학사상을 광범위하게 분류 정의함으로써 기호론의 위치와 언어학적 관계에 따른 건축공간에서의 기호론적 정의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논증시켰다.

그리고 주로 건축에서 파악되는 언어의 기호론적 의미를 형태 표현에 주력하여 논의하였던 연구에 비해서, 해석범위를 공간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기호론

2.1. 현대 철학사상 개관

고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각 시대에는 그 사상의 중심과제에 따른 가치기준이 성립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다양

* 정회원,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한 사상적 영역을 개념짓게 한다. 고대에는 도덕과 정치를 사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여 본질적 기능에 따른 유용성을 가치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세에는 기독교를 중심사상으로 한 자연의 상징적 비례 표현에 주력하였고, 근세에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른 과학적 합리성에 사상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 이후 발전해 온 자연과학의 방법을 부주의하게 인문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산술적이고 기계론적 사고에 대한 반성¹⁾과 계몽사상에 따른 진보논리에 대한 반성²⁾이 일어났다. 그와 같은 다양한 반성의 표현은 현대의 철학사상을 그 맥락적 연계성에 따라 2가지의 주도적 흐름으로 분류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현대 철학사상 분류의 첫 번째 흐름은 바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현상학에서부터 존재론과 실존주의 등으로 연결되는 흐름이고, 두 번째 흐름은 미국과 영국을 배경으로 발전된 상징론에서부터 언어학과 구조주의 등으로 전개되는 흐름이다.

첫 번째 흐름은 세계를 분석이나 추상과 같은 자연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직접적 체험에 따른 직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사고에는 현상학(phenomenology)³⁾의 후설(E. Husserl)에서부터 존재론(ontology)⁴⁾의 하이데거(M. Heidegger), 그리고 실존주의(existentialism)⁵⁾의 사르트르(Jean-Paul Sartre)로

이어지는 철학사상이 포함된다.

두 번째의 흐름은 철학사상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첫 번째 흐름과 구분되어, 철학과 관련된 여러 학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연구방법과 필요성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영역에는 상징론(symbolism)⁶⁾의 철학자 카시러(E. Cassirer)에서부터 언어학(linguistics)⁷⁾의 소쉬르(F. de Saussure), 그리고 구조주의(structuralism)⁸⁾의 민족학자 레비-스트로스(C. Lévy-Strauss) 등 다양한 학술분야에서의 연구가 포함된다.

2.2. 언어학과 기호론

현대 철학사상의 분류를 통해서 사고의 관점이 인간의 존재와 본연에 대한 문명화된 현대 비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중에서 인간 본연의 고유함과 연관된 인간행위의 포괄적 현상으로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발전⁹⁾은 현대 인

- 1) 철학에서는 니체(F. W. Nietzsche)와 딜타이(W. Dilthey), 베르그송(H. Bergson) 등이 '생 철학(Lebensphilosophie)'을 통해서 헤겔철학의 이성적인 주지주의에 반대하는 체험적 생에 대한 직관적 파악이라는 개인적 자아의 우월성과 존엄을 주장하였고, 예술과 문학에서도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에 반대하는 '유미주의(aestheticism)와 상징주의(symbolism)를 통하여 예술의 자기표현을 중심과제로 하는 표현파(expressionism)나 초현실파(surrealism)와 같은 사조의 기초로 작용하였다.
- 2) 19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계몽주의에 대한 진보주의 사상이 20세기에 는 슈펜글러(O. Spengler)의 '서양의 몰락'이나 뎀포드(L. Mumford)의 '기술과 문명'과 같은 저술에서 비판하듯 기계문명의 과잉적 기대와 진보를 비판하거나 서양문화에 대한 지나친 우월성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와 같은 민족학자나 인류학자의 비판적 반성이 이루어졌다.
- 3)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phainomenon과 담론을 뜻하는 logos에 어원을 둔 현상학은 1734년 랑베르(Jean-Henri Lambert)가 처음으로 비판들에 대한 이론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후설이 가시적 현상을 평가절하해 온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여, 의식에 드러나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과학을 지칭하는 일종의 방법에 해당된다.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의식의 행위에 관련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물 자체로 돌아가는 것', 즉 선형적 환원을 통한 의식과 대상과의 의미를 서술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 4) 존재하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einai의 현재분사인 on, onos와 이론을 뜻하는 logos에 어원을 둔 존재론은 고대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형이상학에 관한 원리로서 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은 이후 17세기가 되어서였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의 보편적 과학으로 파악되는 지고한 존재를 비판하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인 現存在(Dasein), 즉 '나 자신'과 '세계 內存在(in-der-Welt-Sein)를 규정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불멸이 아닌 죽음이라는 '불안'을 내포한 가장 소박한 존재임을 제시했다.
- 5) 실존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existence에 어원을 둔 실존주의는 구체적인

- 고 개별적 차원의 인간 실존을 철학적 반성의 중심에 놓는 모든 철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하이데거나 야스퍼스(K. Jaspers), 키에르케고어(S. A. Kierkegaard), 그리고 사르트르와 같은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공통적 주제를 가리킨다. 철학적 추상화에 반대하여 주제성과 체험의 구체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덧붙여, 사르트르에서는 실존의 절대적 자아와 관련된 우연성을 제시한다. 자신의 존재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연성은 완전한 무신론을 표명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무조건적 자유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있는 절대적인 자아 중심적 실존이 되는 것이다.
- 6) 상징은 인간의 정신적 의미세계의 일부로써, 신화, 언어, 예술, 역사, 종교, 과학 등이 모두 인간의 독자적인 정신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일종의 상징형식(symbolic form)이라고 카시러는 정의함으로써, 상징철학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그는 인간이 상징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대상에 대한 기호와 의미를 연관시키는 의식의 상징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상징형식 과정을 통하여 과학의 구조뿐만 아니라 언어와 예술 등의 의미까지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1923-29년 출판된 '상징형식의 철학'에서 주장했다.
- 7) 언어나 랑그, 파롤을 뜻하는 라틴어 lingua에 어원을 둔 언어학은 20세기 소쉬르가 창시한 과학적 철학으로서, 견고하고 분절된 기호체계인 랑그를 그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언어에 대한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사상을 불식하고 언어의 구성과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구성능력을 가능케 했다. 언어라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인간 과학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기호론이나 의미론 등 새로운 학문분야를 형성시키기도 했으며, 수학이나 논리학을 언어와 관련하여 연구한 러셀(B. Russell)이나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등의 분석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 8) 구조를 뜻하는 프랑스어 structure에 어원을 둔 구조주의는 소쉬르가 사용한 언어학의 구조주의적 방법을 민족학에 레비-스트로스가 도입한 것을 지칭한다. 언어나 친족, 신화 등 인식대상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한 집합의 각 항들 간을 정의해 주는 기호체계 관계의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미개민족의 정신적 능력 내지는 일관된 논리 구성방법이 바탕이 된 사고구조를 연구하여 서구 근대의 사상과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민족학에서의 구조주의 연구는 60년대 라캉(J. Lacan), 알튀세르(L. Althusser), 푸코(M. Foucault), 데리다(J. Derrida) 등 철학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구조주의적 흐름에 함의함으로써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 9) 언어학적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념의 전성기로서, 데카르트(R. Descartes)관에 입각한 절대적 사고로서 로크(J. Locke)와 홉스(T. Hobbes)는 관념을 자아와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간과학의 체계와 관계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소쉬르는 언어의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인 랑그(langue)와 개인적이고 유동적인 차원인 파롤(parole)을 구분했으며, 언어학의 대상으로 랑그를 규정하여 하나의 완성된 기호체계로서의 단어의 상호관계를 연구했다. 즉, 공시대적 언어학(linguistique synchronique)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다.¹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말을 배우는 과정은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전에 수동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산물로서의 언어, 즉 개인적 언어활동에 의해서 맺어진 사회적 결정체로서의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행위인 파롤보다는 인간 공동체에 고유한 소통 도구인 랑그, 즉 언어의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어학이 연구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랑그인 언어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의해서 청각 영상인 소리와 의미 내용인 개념이 결합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쉬르는 언어를 하나의 기호로 파악하여 개념을 기의(所記, signifié)로, 소리 또는 청각 영상을 기표(能記, signifiant)로, 대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소쉬르는 언어라고 하는 기호체계를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정의하여, 언어학의 신기원일 될 기호체계의 본질들을 밝히고 있다.¹¹⁾

그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체계가 이론적 의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련의 소리(청각영상, 기표) 차이와 개념(의미내용, 기의) 차이가 자의적으로 결합된 우연에 의한 것으로 정의했다. 본래 '차이'밖에 없었던 언어에 대한 기호는 상호 구별되는 것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로는 기호에서의 기표와 기의가 한 장의 종이와 같아서 앞면을 자르면 뒷면도 잘라지듯이, 의미에서 소리를 분리할 수도 소리에서 의미를 분리할 수도 없는 관련이 있게 된다.

따라서 언어는 의식을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와 같은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호들의 의미를 연구하는 과학¹²⁾이라고 소쉬르는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언어학은

¹⁰⁾중계하는 일련의 대상으로 보고 언어 또한 관념체계 내에서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들뢰즈는 의미의 전성기로, 언어학을 일종의 정신사의 수단으로 본 훔볼트(W. von Humboldt)와 프레게(G. Frege) 등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지금까지의 세계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얻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문학의 전성기에서 언어가 직접적 대상간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시기이다. 초기의 언어학자들은 개개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독립적 실체로 해석했지만, 촘스키(N. Chomsky) 이후에는 상대적 사고의 가능성을 가정으로서 본질적 문장으로 구성된 자율적 지식에 대한 인식은 탐구의 새로운 대상과 의식을 가능케 했다.

¹¹⁾이로부터 소쉬르는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으며, 기호학의 가능성을 예견함으로써 퍼스와 함께 현대 인간과학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Clément, Elisabeth 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철학사전-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동녘, 1996, p.164

¹²⁾김철호 외, *세계의 사상 100선, 일반언어학 강의*, 녹두, 1994, pp.308-312

기호학의 한 부분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3. 기호론 정의와 구성

기호론(semiotics)¹³⁾은 언어학을 토대로 한 유럽의 소쉬르(1857-1913)와 논리학과 인식론을 토대로 한 미국의 퍼스(C. S. Peirce, 1839-1914)에 의해 발전한다.

소쉬르가 언어학으로부터 기호론을 성립시켰다면, 퍼스는 논리학을 기호학의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서 기호학에 현상학적이고 화용론적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에 근거한 이론적 사변의 실용주의(pragmatism)와 현대 기호학의 창립자로 유명한 그는 백과사전식 지식 채집을 바탕으로 논리, 감정의 본질, 범주의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수학자의 분석적 방법론과 실험 과학자들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논리, 인식의 기호학을 성립시켰다.¹⁴⁾

퍼스는 기호현상을 기호(sign)와 대상(object), 그리고 해석항(interpretant)이라는 세 가지 기호요인의 협동작용과 영향이라고 설명하였다.¹⁵⁾ 그의 기호 삼분법에 덧붙여 기호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도상과 지표, 신호, 상징의 4가지로 정의¹⁶⁾된다.

유형 분류에 따른 기호의 과정을 분석적 관점으로 정의하면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와 맺는 관계를 의미하는 통사론적 관점과 기호가 그 자신에 의미된 대상들과 맺는 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론적 관점, 그리고 기호가 기호사용자와 맺는 실제적 관계를 파악하는 실용적 관점으로 나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기호에 의미가 부과되는 과정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면 합당하게 파악되고 기술될 수 있다.

그러나, 기호가 다른 기호관계 속에 접합되거나 다른 무엇과 연관을 맺거나 다른 기호사용자에 의해 구사될 경우와 같은 과정에 따라서는 기호의 의미가 다르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를 엘름스레프(Hjelmslev)는 자신의 기호체계 모델을 통해서 4원구조의 이중분할 도식으로 설명하였다.¹⁷⁾

¹²⁾Guiraud, Pierre, *Semiology*, Kegan Paul Ltd, 1975, p.1
¹³⁾프랑스의 기호학(semiology)에 해당하는 미국 학계의 담론을 흔히 기호론(semiotics)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 내용의 차이는 별로 없다.
¹⁴⁾김우창 외, 103인의 현대사상-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 민음사, 1996, pp.632-637
¹⁵⁾Eco, Umberto, *건축기호론*, 송민구, 꾸림 34권, 1982, p.62
¹⁶⁾도상(icon)은 관련대상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얽은 기호를 말하는 것으로 대상을 그린 초상화나 조각, 사진, 지도, 도면 등을 말한다. 지표(index)는 대상과 닿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기억이나 감각과의 역동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결혼의 지표에 해당되는 반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신호(signal)는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대상과 행동이 정확히 일대일 대응하는 인위적인 기호를 말하며, 예로 빨간 신호는 멈추라는 일종의 신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징(symbol)은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숨겨진 의미의 연상적 기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진군할 때기가 부러지는 것은 패배라는 함축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¹⁷⁾Broadbent, Geoffrey, Bunt & Jencks,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그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 개념과 유사하게 기호를 내용(content)과 표현(expression)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형식(form)과 실체로 세분하였다. 즉, 기호는 어떤 내재적 특성을 가지는 실체이지만, 그 기호를 포함한 체계 내에서 다른 기호들과 갖는 관계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별 문화는 나름의 표현체계와 그에 대응하는 내용체계를 갖게 되며, 동시에 동일한 기호의 의미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3. 기호론적 건축 공간

3.1. 예술과 건축의 기호론적 접근

회화나 조각과 같이 예술가의 해석에 따라 기존의 사물을 묘사하는 예술분야는 언어를 논의수단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개하는 문학과 유사성에 의해서 비교적 오래 전부터 언어학적 해석이 이루어졌다. 크로체(B. Croce)는 문예를 토대로 예술의 본질이 작가가 자신의 마음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술이 언어라고 정의할 정도로 당시의 언어학에 대한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였다.

비록 예술을 단순히 언어와 동일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언어도 표현이므로 상징과 의미, 그리고 기호를 통한 다양한 과정으로 예술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랭거(S. Langer)는 상징을 언어나 과학과 같은 변론적(discursive) 상징과 제의, 신화, 예술과 같은 비변론적(nondiscursive) 상징으로 구분하여 예술을 일종의 유사언어(pseudo-language)로 간주하기도 했다.

더욱이 20세기 중반부터는 예술작품이 갖는 형태적 측면보다는 의미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종의 정보 전달의 매체로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기호론과 언어학적 접근을 보다 확립시켰다.

이러한 접근경향은 건축에서도 이미 이루어져왔다. 콜린스(P. Collins)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에 건축을 이해하는 인기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언어학적 해석이었다고 했다.¹⁸⁾ 이후 건축의 언어학적 접근은 근대건축에서 파생된 획일적이고 무미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1950년대 말 고전주의 건축과의 조화에 고심하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건축의 언어학적 초기 접근은 크게 2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 예술과 기호체계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건축을 다루는 에코(U. Eco), 자로니(Garroni)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에코는 문화의 모든 실

체를 의미작용과 전달 관계로 구성된 '기호현상(semiotic phenomenon)'으로 간주하여, 건축도 문화현상의 일종으로서 기호론적 범위에서 연구될 수 있다는 건축 기호론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경향은 연구대상을 건축 자체에 한정하여 행하는 것으로 스칼비니(M. L. Scalvini), 푸스코(R. de Fusco)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⁹⁾

미국에서는 디자인 방법론과 환경심리에 대한 논의의 발전이, 1972년 벤추리(R. Venturi)와 브라운(D. S. Brown)의 저서 '라스베가스의 교훈(Learning from Las Vegas : The Forgotten Symbolism of Architecture Form)'이나 1977년 젠크스(C. Jencks)의 '현대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등의 건축이론과 관련되어 그레이브스(M. Graves)와 아이젠만(P. Eisenman)의 건축작품에 본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예술을 비롯한 건축은 현대에 이르러 언어학을 바탕으로 한 기호론적 범위에서, 건축과 언어가 공유하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 내지는 기호전달의 관점으로 건축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현대건축의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3.2.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정의

기호론적 건축을 정의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호체계에 대한 외면 형식의 시니피앙과 내용 의미의 시니피에 상호간에 성립하는 관계성이 건축의 의사소통을 수신자와 발신자의 기호체계라는 건축기호론²⁰⁾으로 해석하여, 공간과 형태간에 성립되는 건축언어 내지는 기호적 의미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본다.

특히 건축의 공간에 대한 기호론적 해석은 건축공간의 형식과 의미의 연상적 관계를 기호구조적 체계의 상호관계성에 집중한 공간 기호학에 대한 일종의 미적 인식에 접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간 기호학²¹⁾에 대한 논의는 의미생성의 조건뿐만 아니라 표현과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의도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공간적 의미의 이러한 의도성은 기표의 선택에

19)인석재, 건축의 기호론적 해석, 서울대, 1987, p.31

20)시기적으로는 이미 살페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탈 근대건축의 한 부분으로 성립된 건축기호론은, 소쉬르의 유럽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적용하여 건축을 하나의 기호체계로 보고 언어에 유추하여 그 의미전달의 속성을 연구하는 경향과 피스의 이론을 적용하여 건축을 사회 내에서 창조와 사용, 소멸, 재창조의 순환적 과정을 겪는 기호로 보고 그 속성을 연구하는 경향, 그리고 구조 인류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건축의 이면에 숨겨진 인류사회학적 의미를 연구하는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공간기호학은 학문적 배경을 그레마스(A. J. Greimas)에 두어 환경 의미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레마스는 소쉬르와 엘름스레프의 이론을 계승하면서 현대 기호학 및 후기 기호학의 사상을 발전시킨 이론가이다. 기호의 텍스트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기호가 갖는 역동적인 의미의 생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텍스트의 담론화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체계로서 이해해야 한다.

John Wiley & Son, 1980, p.22

18)그러나 실제로 당시 건축의 언어학적 해석은 주로 의사소통적 기능과 정보표현적 기능에 한정되었을 뿐 문법적 측면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있어서 계열적 차원의 의도성에서부터 형상의 위상적 배치를 통해 나타나는 통합적이고 구성적 차원의 의도성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즉, 기호론적 건축에 대한 공간 해석은, 건축공간에 대한 상징적 의미 단계를 외연적(denotative) 의미와 내포적(connotative) 의미로 구분²²⁾하여 장소와 관련하여 그 안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대조적인 사고나 사물들의 혼돈상태를 초월하여 반대되는 것들을 공존하게 함으로서 양면적인 형상, 즉 상호대립적으로 관계하는 공간형식의 차이 속에 개념화²³⁾되어 의미지어지는 공간 범주로 해석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해석 범주는 기호개체의 외재적 의미로서 해석되는 전통과 문화, 유형이 포함된 '외연적 맥락의 의미론적 은유공간'이라는 범주와 구문론의 이론적 질서로서 해석되는 의미형태의 상대성과 탈가능성이 포함된 '내포적 자율의 통사론적 심층공간'이라는 범주로 규정하여 작품을 해석하도록 한다.

3.3.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해석

기호론적 건축에 대한 공간의 해석을 위해서는 건축언어의 기호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작품에 적용한 건축가를 대상으로 비교 정의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건축가의 작품으로는 그레이브스와 아이젠만의 초기작품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의 작품을 대립구도의 분석적 해석보다는 의미전달 방식에 대한 범주적 해석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두 사람은 모두 뉴욕 5(New York 5) 건축가²⁴⁾로서,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를 비롯한 모더니즘 거장들이 행한 근대의 합리주의적 구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백색 건축과 같은 Neo-Corbusian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들은 르코르뷔지에의 기하학적 구성과 입체파(cubism)의 기계 형태적

22) 이러한 분류는 벤츨리(R. Venturi)가 제시한 기호론적 관점의 의미단계를 적용한 것인데, 그의 분류가 역사적인 실례를 재해석하여 응용시킨 작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포적 의미란 대상 자체의 물리적 특성에서 나오는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고, 외연적 의미란 건축의 문화적 관습요소에서 나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23) 이것에는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언어를 3가지로 구분하게 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건축공간이 단순히 독립된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의미로 파악되며, 공간구성적 측면에서는 3차원적 공간을 이루는 공간구조를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보고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존재방식과 의미작용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다. 조형미학적 측면에서는 공간을 감각의 대립과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미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각적 구조화를 실현시킴으로써 미적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4) 뉴욕 5 건축가에는 그레이브스와 아이젠만을 비롯하여 파쓰메이(C. Guathmey)와 헤이덕(J. Hejduk), 마이어(R. Meier)를 말하는데, 이 건축가들은 미국 합리주의의 중심이 되어서 당시 로시(A. Rossi)와 그라시(G. Grassi)의 이탈리아 신험리주의와 보타(M. Botta)와 스노체(L. Snozzi)의 스위스 합리주의, 그리고 웅거스(O. M. Ungers)의 독일 유형학과 함께 현대건축의 합리주의적 전통을 계승한다.

추구, 테라니(G. Terragni)의 엄격한 기능표현적 합리주의(Rationalism)를 추구하였으며, 특히 건축을 언어작용의 구성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건축에 적용하였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간을 포함한 건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레이브스는 기호체계에 부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미론(semantics)을 탐구해온 반면, 아이젠만은 잠재적 의미가 건축에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통사론(syntax)을 사용했다.

(1)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그레이브스는 언어학적으로 전달되는 건축공간의 의미작용에 있어서, 1차적 의미인 기능적 영역만을 추구했던 근대건축의 디자인 개념을 거부하고 건축의 2차적 의미인 사용자와의 기호화(code)를 통한 상호작용이라는 이중구조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상징화시킨 건축가이다.

그는 또한 은유의 영역을 르코르뷔지에의 초기작품이나 그리(J. Gris)의 입체파적 어휘로는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뒤부터는, 전통적 요소와 지역적, 문화적 맥락과 같은 외연적 요소를 통합하여 한계를 극복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이중구조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이 건축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되고 플라주되며, 관찰자의 기억이나 경험, 연상과정을 통해서 건축은 건축가와 대중의 코드를 모두 고려한 다중코드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고전적 원형이 플라주되기도 하고, 사용자와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서 건물의 정면성과 함께 공간적 깊이를 은유적으로 상징화시키기도 하며, 색채를 사용한 벽²⁶⁾이 공간을 지배한다는 사고로 벽이 두껍게 처리되고, 개개의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²⁷⁾

【한셀만 주택(Hanselmann House, 1967-68)

그의 초기 건축 의미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인 한셀만 주택은, 이중구조 개념의 의미론



<그림 1> M. Graves, Hanselmann House, 19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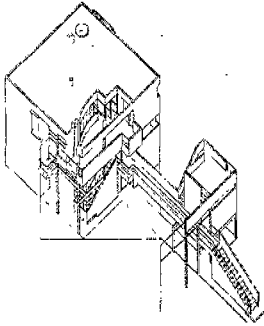
25) 이와 같이 건축 본질에 포함된 내포적 의미보다는 문화와 같은 외적인 영향인 외연적 의미에 관심을 둔 그레이브스는 후기작품에 인식가능한 물딩, 분열된 페디먼트, 키스톤, 격자기법, 크레타양식의 기둥 등 역사적 단편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벽표면이 장식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7/8, 1980, p.130

26) 또한 공간에서 가장 시각적인 의미로 작용하는 벽에는 색채를 은유적으로 사용하였다. 3원색을 사용한 몬드리안파는 다르게 자연을 지향하는 은유적 파스텔 칼라를 주로 사용했다. 청색은 물이나 하늘을, 자색은 더운 물, 녹색은 잔디나 바람을 암시하며 자연의 원초적인 모습을 연상하도록 시도했다. 그러므로 벽면에 그려진 그림은 연속된 개개 공간에 대한 시점을 정지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보다 풍부한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27) Portoghesi, Paolo, After 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82, p.88

적인 은유로서 공간을 구성하였다.

외부 공간구성에서 이중구조가 대립적으로 상징화 된 요소는 입구로서, 입구공간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새로운 건물 구성



<그림 2> M. Graves, Hanselmann House, 19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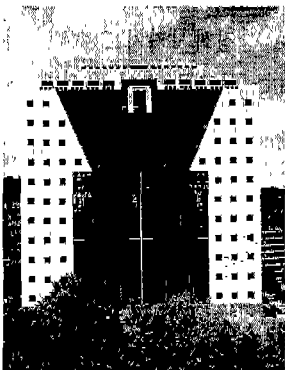
요소로서 재구성했다. 이렇게 전이된 내부공간과 주공간 사이의 브릿지 공간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대립하는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 공간의 대립을 은유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내부공간의 구성에서는 꼬르뷔지에의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입체파적인 내부벽화가 단편적으로 적용되어서 공간이 보다 다양하게 인식되고, 하늘을 암시하는 파랑과 자연을 암시하는

녹색이 공간을 충화시켜 보다 큰 깊이감을 느끼게 한다.²⁸⁾

이처럼 항상 변화하는 수평과 평면으로의 공간 전개라는 주제로 복잡한 건축을 공간적 조각으로 변형시킴으로서, 기능적 의미에서보다는 이중성과 다원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의미를 구성하여 건축공간의 의미를 은유화하여 상징하였다.

■ 포틀랜드 시청사(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 19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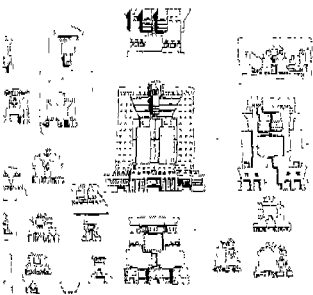


<그림 3> M. Graves, 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 1980-82

그레이브스가 초기에는 자연요소를 그 맥락 속에 은유적으로 부여한 것에 비해서 후기에는 전통적, 문화적 요소와 같은 구체적인 외연요소를 결합시켜 보다 직접적 의미로서 은유하는 건축공간을 창조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포틀랜드 시청사로서, 단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고전적 모티브를 대규모의 도시건축에 적용하여 도시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현대 사무실 건축의 새로운 건축언어로 작용하였다.

정면의 거대한 반사유리창은 어두운 색과 반사효과로 인해서 콘크리트벽에서 후퇴된 듯한 깊이감을 주고 있으며, 창이나 기단부의 아케이드는 주변의 건축에서 직접 인용



<그림 4> M. Graves, 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 1980-82

된 점에 의해서 도시 맥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은유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사회적 의미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로서 건축된 이 건물은, 벽 표면의 의미가 형상과 색과 함께 은유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내부공간의 표피로 작용하게 하여 연속된 회화적 맥락 속에서 보다 풍부한 공간인식이 가능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아이젠만은 건축을 언어작용의 시스템으로 보고 언어로서 문장이 구성되듯이 공간구성과 형태표현을 그 생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화된 기하학적 질서와 대상 자체에 내포된 자율적 의미를 중시하여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통사론적 해석을 한 건축가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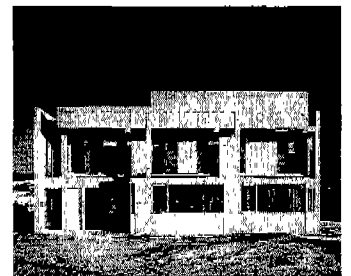
그는 또한 건축형태와는 다른 본질적인 건축의 법칙들, 즉 내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층구조' 개념을 실, 공간, 그리고 질서를 발생시키는 인자로 간주하고³⁰⁾ 이러한 건축법칙의 체계로부터 생성되는 공간적 의미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건축이란 공간 내에서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생성과정에 집중하여 형태 생성의 요소인 다양한 심층구조가 표상되어 각 형태구성 법칙들이, 즉 대각선상의 볼륨의 이동이나 선과 면의 회전과 역전, 공간의 층(layering) 등 통사론적 요소들이 표상되어 나타나는 것이 표면에서도 인식가능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아이젠만의 기호론적 접근방식은 건축가의 내적 사고에 의해 상상되는 형태를 외적인 문제보다는 건축의 자율적 구성원리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언어로 된 고도의 복잡한 코드를 사용한 환원적 공간구성을 가지게 된다.

■ 주택 II호(House II, 1969-70)

그의 통사론적 건축이론이 반영되어 심층구조의 대립이라고 불리는 벽과 기둥, 볼륨과 기둥, 볼륨과 벽 등의 체계가 사용된 대표적 건축인 주택 II호는, 르 꼬르뷔지에의 도미노 하우스와 같은 직교 그리드 위에 사각형 피어로 변형된 기둥이 마치 백색의 평면벽에서 볼륨과 함께 제거되고 변형되어 추상적 공간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조요소들이 비내력적 기능으로 전환하여 기둥, 벽, 볼륨의 배열은 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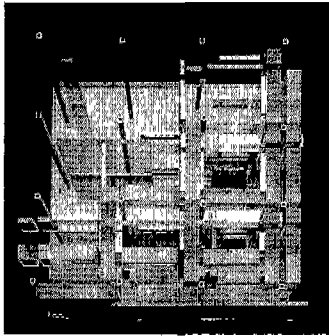
<그림 5> P. Eisenman, House II, 1969-70

29) 그는 초스키의 언어학적 통사론, 니체의 니힐리즘(Nihilism), 푸코의 상징주의 개념, 말레비치(K. Malewitsch)와 몬드리안(P. Mondrian)의 비대칭적 추상화 개념 등의 영향아래 초창기부터 건축을 언어 작용의 기호체계로 간주하였다.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건사, 1997, p.237

30) Smith, C. Ray, Supermannerism, P. E. Dutton, 1977, p.36

28) 윤장섭, 서양현대건축, 보성문화사, 1987, pp.361-362

있어서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되어 형상과 배경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심층구조는 대각선상의 면들과 함께 조합된 다층화된 공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림 6> P. Eisenman, House II, 1969-70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을 보이려는 구조화된 체계는 일종의 자율적 실체로서 건축을 공간적 음악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음악이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주택에서 보이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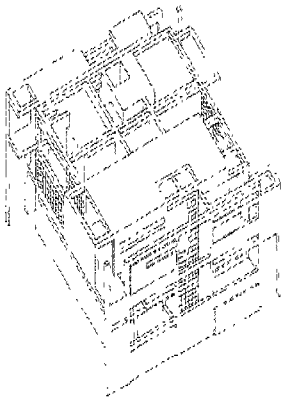
상범칙과 같은 건축기호가 순수한 통사론적 기호로 환원³¹⁾될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VI호(House VI, 1977)

이 주택은 아이젠만의 초기 주택과는 다르게 그 기호적 표현에 있어서는 형식주의자적 의미의 관념과 완전히 결별한 최초의 건물이다. 그것은 구조를 조직화한 수직의 얇은 벽이 거대하게 정면과 배면의 양 파사드에서 형태의 요소보다는 내부의 층상화된 중앙공간을 강하게 표식하고 있는 것에서처럼 형태로서 이 주택을 파악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의 내부공간에는 대각선으로 자르는 시각축을 만들고 있는 이중계단에 의해서 집의 중앙공간을 분할하고 있으며, 기

둥은 상이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부재된 기둥은 지붕과 벽, 바닥을 통해 절단되고 관통되어 있으며, 외부의 기둥선은 확장된 벽 기둥이나 두 볼륨 사이의 공간적 사이로 나타나며, 실내계단 중 유사계단은 녹색으로 칠해진 실제의 계단 반대편에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와 같은 건축요소의 비기능주의적 구성은 공간내부에 일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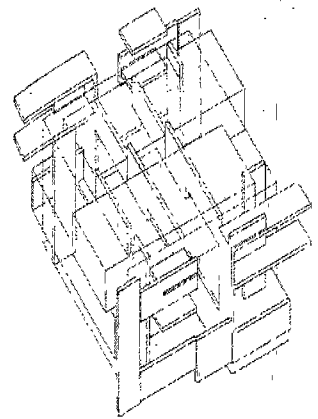


<그림 7> P. Eisenman, House VI, 1977

신호 혹은 기호로 작용하여 확실한 공간적 정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구조요소들의 전환에 따른 변화과정을 그린 개념적 도면들은 건축의 기호론적 해석이라는 디자

인 논리 과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게 되어서³²⁾ 결국 외연적 요소인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여 건축의 내재된 자율성이라는 자신의 언어로만 표현하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림 8> P. Eisenman, House VI, 1977

4. 결론

건축이 다른 모든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의 구성에 있어서, 언어를 논의수단으로 하는 문학과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었다. 따라서 건축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며, 기호론이 대두된 이후 최근에는 건축과 언어가 공유하는 의미전달의 차원에서 건축을 기호론적 해석하려는 경향이 현대건축의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언어학을 포함하는 기호론의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가 기호론적 건축을 정의함에 있어서 건축의 공간과 형태간에 성립되는 건축언어 내지는 기호적 의미의 관계성이 포함된 건축을 대상으로 그 범주적 해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 범주는 기호개체의 외재적 의미로서 해석되는 외연적 의미범주와 구문론의 이론적 질서로서 해석되는 내포적 통사범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언어의 기호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작품에 적용한 그레이브스와 아이젠만의 초기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레이브스는 건축을 의미론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근대건축의 합리적 전통 속에 배제된 문화의 상징적 의미작용을 실현한 것에 비해서 아이젠만은 구문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근대건축요소의 분리원리에 대한 건축 프로세스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레이브스의 기호론적 건축공간 해석은 기호개체의 외재적 의미로서 해석되는 전통과 문화, 유형이 포함된 '외연적 맥락의 의미론적 은유공간'으로 규정되며, 아이젠만의 기호론적 건축공간 해석은 구문론의 이론적 질서로서 해석되는 의미형태의 상대성과 탈기능성이 포함된 '내포적 자율의 통사론적 심층공간'으로 정의된다.

31) Eisenman, Peter, A+U, 이호정, 집문사, 1988, p.152

32) Jencks, Charles, Current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1982, pp.82-83

참고문헌

1.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미진사, 1997
2. 김우창 외, 103인의 현대사상-20세기를 움직인 사상의 모험가들, 민음사, 1996
3. 김철호 외, 세계의 사상 100선, 일반언어학 강의, 녹두, 1994
4. 윤장섭, 서양현대건축, 보성문화사, 1987
5. Bonta, Juan Pablo,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건축의 표현체계, 서유석, 기문당, 1992
6. Broadbent, Geoffrey, Bunt & Jencks, Signs, Symbols and Architecture, John Wiley & Son, 1980
7. Clément, Élisabeth 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철학사전-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동녘, 1996
8. Eisenman, Peter, A+U, 이호경, 집문사, 1988
9.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1992
10. Guiraud, Pierre, Semiology, Kegan Paul Ltd, 1975
11. Jencks, Charles, Current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1982
12.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7/8, 1980
13. M. Lampugnani, Vittorio, Encyclopaedia of 20th-Century Architecture 20세기 건축가와 사조, 김문덕, 김경춘, 도서출판국제, 1988
14. Portoghesi, Paolo, After 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82
15. Smith, C. Ray, Supermannerism, P. E. Dutton, 1977
16.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도서출판국제, 1994
17. 渡邊 護, 藝術學 예술학, 이병용, 현대미학사, 1994
18. 임석재, 건축의 기호론적 해석, 서울대, 1987
19. 강혁, 건축의 문법에 대하여, 건축문화, 9106
20. Eco, Umberto, 건축기호론, 송민구, 꾸림 34권, 1982

<접수 : 2001. 7. 31>